

## 건설교통부 청렴도 최하위권

-건교부퇴직자 산하기관, 사기업체로의 재취업 심각한 수준-

### ■ 현 황

#### ○ 건설교통부 청렴도

2005년 12월 국가청렴위원회 발표

(건교부/전체평균)

구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종합 청렴도	4.27/6.43	6.21/7.71	8.48/ 8.46	8.40/8.68
청렴도 순위	71/72	75/77	43/79	82/99

-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2005년도 평균 청렴도가 **8.21**점으로 전체 공기업 평균(8.68)보다 낮은 것은 물론 전체 평균을 넘는 기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평가<sup>1)</sup>되고 있음

#### ○ 관련단체 및 산하기관 재취업 37.5% (2003년 이후)

- 2003년 이후 건설교통부관련 단체 및 산하기관 재취업 임원현황을 보면 건설교통부 퇴직자 56명 중, 관련단체나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임원수는 21명으로 전체의 37.5%에 해당하고 있음

#### ○ 공직자윤리법 위반 (2004년 이후)

- 최근 2년간 건교부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공직자 중 일반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한 경우가 총 3명이고 이들은 모두 공직자윤리법 시행(2001년 4월

1) 2005년도 청렴도 조사결과

대한주택공사 7.99, 한국수자원공사 8.58, 한국토지공사 8.51, 한국도로공사 7.65, 한국철도공사 8.62, 한국철도시설공단 7.68, 인천국제공항공사 8.21

27일) 이후 재취업하였음. 이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2)에 의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신청은 1건 밖에 없었으며 불승인결정이 있었음

● 일반기업체 재취업한 경우

건교부 퇴직당시 부서	퇴 직 일	취업 업체	취 업 일
항공00 본부장	2004	제주항공(주)	2005
00지방공항청장	2005	한국복합물류(주)	2005
부산국토청 00국도사무소장	2005	케이에스엠 기술(주)	2005

○ 버블세븐 지역에 거주하는 건교부 4급 이상 공무원현황

구 분	직급 별 인원	거주 인원(%)	강 남	서 초	송 파	양 천	분 당	평 촌	용인지역
고위공무원	28	15(53.6%)	6	5	3	0	0	0	1
3급 공무원	13	6(46.2%)	3	2	1	0	0	0	0
계	41	21(51.2%)	9	7	4	0	0	0	1

- 수도권 거주 3급 이상 고위공직자 1,289명 이중 48%가 버블7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부처별로는 기획예산처가 79%, 재경부 71%이며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건설교통부는 51.2%로 비교적 낮은 수치임
-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거주 비율은 95.2%로 편중되어 있음

■ 문제점

✓ 산하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재취업 국민 불신 우려

- 2005년도 건설교통부의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잔존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공사계약 및 각종 검사, 감독 등 고질적인 취약분야에서 잔존부패의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됨

2)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은 한 건도 없었음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서의 취업제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6][[시행일 2001.4.27.]]

- 특히 건설교통부 출신 퇴직자의 산하기관 및 단체 임직원으로의 재취업은 건교부의 청렴성에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고위 공무원이 재직 시절에 취득한 기밀정보와 인맥 등을 활용해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 증가

✓ **일반 영리사기업체 재취업 공직자윤리법 위반**

-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후 최근 2년간 통계를 보면 건교부 퇴직후 일반 영리 사기업체 재취업한 경우는 3명이 있음. 이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신청은 1건 밖에 없었으며 불승인결정이 있었음.

✓ **건설교통부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청렴성 개선 노력 필요**

- 버블7지역 거주 고위공무원 현황을 다른 부처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낮은 수치이지만 21명 중 1명을 제외한 20명(95.2%)가 강남권에 집중되어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따라서 그만큼 더 높은 청렴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됨

■ **정책 대안**

- 건설교통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적 노력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및 관련업계의 공동 반부패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며, 현재 건설교통부가 계획 중인 “부패영향평가 및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sup>3)</sup>”을 활성화 시켜 부패 유발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는 노력과 실천이 필요함
- 건설교통부의 자체감사기능을 확대하여 퇴직 후 산하기관으로의 재취업을 관리, 감독하고 특히, 유관 영리사기업체로의 재취업에 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3) 부패영향평가 및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

법령, 제도상 부패영향을 평가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상시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연계시켜 부패행위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제도로서, 부패영향평가를 상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실 및 청렴도 향상 기획단에 보고하고 점검하는 시스템